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성격과 의의

이 한 기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Han Ki Lee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mmary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1906-1945) through historical review on the work.

Th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was categorized into six patterns such as agricultural extension work by ① government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② agricultural experiment/research institute, ③ public school, ④ through the movement of rural development(Nong-chon-Jinheung Undong), ⑤ pro-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 and ⑥ pure private organization.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nsion work were defined; 1) a tool and/or method for colonial rule, 2) non-democratic and top-down extension work by administration, 3) authoritative and coercive work initiated by governmental system, 4) nation wide work of coope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 5) extension work focused on production increasing food and industrial materials, and 6) extension work initiated by government system without participation of pure private organization.

The meanings of the extension work were reviewed in two ways. Firstly, in macro point of view, the work has negative meaning that was utilized as a tool and/or method for Japanese colonial rule, since the extension work was implemented under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policy and was also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y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Secondly, in micro point of view, the work has significant meaning either negative or positive such as 1) beginning of modernized extension work based on experiment and research, 2) introduction of forcibl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3) inducement of distrust tendency to agricultural policy and agricultural extension work, 4) establishment of basis in hardware of agricultural extension work, 5) production of experience in software of agricultural extension work, and 6) improvement of recognition toward scientific farming and improvement of level in agricultural techniques.

I. 머리말

일제시대의 농촌지도사업은 1906년 일제의 보호통치가 시작되면서 저들의 식량 및 공업원

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식민지배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식량증산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개량품종의 현지 적용시험과 보급사업을 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910년 한일합병 후에는 조선총독부와 지방의 농정조직을 정비하고 시험연구기구를 확대하는 한편 각급 행정단위에 농사기술지도요원을 배치하여 본격적인 농민지도활동을 실시하고 농업계 학교는 물론 각종 官附단체를 설립하여 거국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더욱이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농밀한 지도활동을 하는 등 많은 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정책과 농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인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된 것은 해방이후 미국식 농촌지도 방식을 도입하면서 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긴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해방이후 오늘날까지의 농촌지도사업은 그 시간적 연속성으로 인하여 일제시대의 농촌지도사업과 연계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간적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의 농촌지도사업은 식민지 시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전모와 성격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전모를 개관하고, 그 성격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기존의 각종 연구문헌과 1차자료로서 구한국관보 및 한국통감부관보, 조선총독부관보와 당시의 신문, 잡지, 시험연구기관보고서, 조선총독부시정연보, 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전개

1. 농정조직에 의한 농촌지도사업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농정기구는 1894년 일제의 영향으로 단행된 갑오경장의 결과로 중앙에 설치된 農商衙門이라고 볼 수 있다. 농상아문은 그 밑에 농상국, 산림국, 수산국, 권장국 등의 부서를 두었으며, 1910년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부터 농정업무는 농상공부 식산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농정조직은 이후 여러차례의 변화를 거치면서 농촌지도업무는 시기에 따라 農桑課, 농무과, 농정과등에서 관장하였다. 1940년 농림국 농정과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1) 농업생산계획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3) 농회, 산업조합, 식산계, 기타 농업상의 단체에 관한 사항, (4) 비료, 농구, 기타 농업용자재에 관한 사항, (5) 소작, 자작농창설 유지, 기타 농지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업노력의 조정 및 농업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 (7)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으로 농촌지도업무가 농정의 여타업무와 함께 농정과에서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단위에서는 일제초기에는 전담과가 없이 권업과에서 상공업 분야와 함께 담당하였으나 1921년부터 내무부에 농무과가 신설되어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군단위에서는 서무계에서, 면단위에서는 권업담당서기가 담당하였다.

농정조직을 통한 농촌지도의 주요과제는 초대총독 데라우치[寺內]총독이 1910년 각도장관에게 훈시한 내용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조선농회, 조선농업발달사-정책편: 181-182) 농산물의 선정 장려, 관개용수 이용, 미곡 제조개량, 시비, 잠업, 면작, 과수, 축산, 종묘장 이용, 농사경영, 저축방법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지도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미작, 棉作, 잠업, 축우 등의 개량증식이 기본이 되었다. 한일합병 후 일제초기의 농촌지도방법은 조속한 농사개량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나머지 매우 강제적인 방법이 자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농민들은 강제적인 한일합병의 영향으로 총독부의 정책 및 농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의식을 가진데다 새로운 농사기술에 대한 이해도 잘 되지 않았던 터라 농사개량지도에 잘 순응하지 않았다. 이에 일제 당국은 무력이나 경찰력을 이용하여 강제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하나의 사례로 행정요원이나 기술지도

요원들이 현지출장을 나갈 때는 무기를 휴대하였으며(조선농회, 조선농업발달사-정책편: 137), 심지어는 농사개량지도에 잘 순응하지 않을 때는 警武官憲을 동원하기도 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1914. 2. 17일자).

농정조직에서 대농민 기술지도를 담당하였던 사람은 주로 농업기술원들이었다. 1908년 당시의 농업기술원 배치현상향을 보면 농업기술관으로 중앙의 농상공부에 농무국장이하 技師 5명, 기수 9명, 지방농업기술관으로는 의주, 평양, 목포, 진주, 전주, 鏡城, 군산, 함창, 영변, 함흥에 기수 각 1명, 권업모범장에 기감 1명[場長], 기사 8명, 기수 10명, 종묘장에는 진주에 기수 2명, 함흥에 기수 1명, 임시면화재배소에 기수 4명, 각지 면화재종포에 기수 17명이었다. 이들 전체로는 국장 및 기감 1명, 기사 14명, 기수 57명이었다. 잠업기술관으로는 용산에 기사 1명, 광주, 군산, 강서, 함창에 기수 각 1명이 있었다. 1912년엔 토지개량 전입 기술관 1명, 각도에 농업전입기사 1명씩을 보강하였고 1919년에 다시 기사 1명씩을 증원하였다. 농업기술원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20년에 1,143명, 1934년에 12,343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경비는 주로 지방비로 하고 10%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하였다.

일제시대 농민지도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강습회였다. 일제시대 최초의 강습회는 1908년 권업모범장 군산출장소에서 개최한 단기 잠업강습회였으며(조선농회, 조선농업발달사-정책편: 138), 이후 각지에서 빈번히 개최되었는데 1911년에는 전국에서 66회, 1916년에는 1천회를 넘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강습회는 4-5개월의 장기도 있었으나 5일 이내의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그 대상은 농사를 짓는 20세이상의 남자들이었다. 강습회의 경비는 대개 지방비로 충당되었으며, 참석자에게는 식비가 지급되었으나 강사에 대한 사례는 없었다. 강습회에 출강하는 강사는 도나 府·郡의 기술원은 물론 각급학교

교사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1912. 7. 9일자). 한편 농업기술의 개량결과를 농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농업기술 개량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농산물 품평회는 1907년 9월~11월까지 경성에서 개최된 경성박람회와 같은 해 권업모범장에서 개최된 소작인 立毛품평회(한국중앙농회보, 제6호: 57)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다수 개최되어 1911년에는 49개소에서 개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12. 10. 3일자). 이 밖에도 각종 농민훈련기관의 설치, 모범農里사업, 임시은사금수수사업, 畝音농사강습회, 시정 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소액생산자금대부제도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을 통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하였다.

2. 시험·연구기관에 의한 농촌지도사업

시험·연구기관에 의한 농촌지도사업은 1900년 서울 필동에 농상공부 소속의 잠업과시험장이 설립되어 개량양잠기술에 대한 연구와 훈련을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험장에서는 수업연한 2년간의 훈련과정을 설치하여 매년 50여명을 배출하였고 1904년에는 명칭을 蠶桑試驗場으로 바꾸고 장소를 서강으로 이전하였다. 1905년에는 농상공학교부속 농사시험장 관제를 공포하여 동대문밖 독섬에 포장을 설치하였다가 1906년에 원예모범장 관제를 공포하여(구한국관보, 1906. 8. 13일자) 독립된 연구와 지도기관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한국통감부는 칙령 제11호로 권업모범장관제를 공포하였다가 이듬해 한국정부에서도 권업모범장 관제를 공포하게 됨에 따라 권업모범장은 형식상으로 한국정부에 인계되어 5월 15일 개장을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연구와 지도가 연계된 농촌지도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권업모범장은 1908년 면화재배협회의 위탁을 받아 면작재배 시험과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목포에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기구를 계속 확대시켜 나갔다. 1908년에는 평양, 군산, 대구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평양출장소에서는 축산을, 군산과 대구출장소에서는 보통농사 중심의 연구와 지도를 담당토록 하였다. 1910년에 한일합병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권업모범장은 자연히 총독부에 이관되고 독점에 있던 원예모범장을 권업모범장 독점지장으로 개편하여 과수, 채소, 화훼 등 원예중심의 시험연구와 기술 보급을 하도록 하는 한편 용산에 원잠종의 제조 및 배부, 잠업기술 연구와 인력육성을 위한 지장을 설치하고 여기에 여자 잠업강습소를 인수하였다.

또한 수원외 농림학교를 권업모범장 부속기관으로 통합하여 권업모범장장이 농림학교장을 겸임토록 함으로써 연구·교육·지도의 3기능이 단일체제로 통합된 종합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가 1918년에 다시 분리되기도 하였다. 이후 권업모범장은 지속적인 기구의 확대와 변천을 거쳐 1919년에는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고 1932년에는 각도의 종묘장을 농사시험장 산하 도 농사시험장으로 귀속시켰으며 일제 말기인 1944년에는 농업시험장으로 개칭되었다.

권업모범장의 임무는 첫째, 산업의 발달개발에 이바지할 모범조사 및 시험, 둘째, 物産의 조사 및 산업상 필요한 物料의 분석 및 감정, 셋째, 종자, 종묘, 잠종, 종금 및 종축의 배부, 넷째, 산업상의 지도, 강습 및 통신 등으로(조선총독부관보, 1910. 9. 30일자) 시험연구와 함께 지도사업도 수행하였다. 권업모범장에서의 지도사업은 별도의 전담부서가 없이 각 부서와 기관에서 모범포설치, 인쇄물의 발간, 강습, 講話, 실지지도 기술자의 양성, 견습생지도, 현지출장순회, 本場소유 농지의 소작인 지도 및 품평회, 본장 참관인 안내, 농민의 질의에 대한 서면 및 구두 설명지도 등 직·간접의 방법으로 농민지도 활동을 벌여 왔다.

도 종묘장에서는 주로 우량농산물의 품종육

성 및 보급, 농사개량 증식을 위한 시험조사와 농사지도를 수행하였는데 1926년 평안북도 종묘장의 경우를 보면(평안북도 종묘장, 사업보고, 1926) 직원은 장장을 포함하여 10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技手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현지출장은 기수들의 주로 나갔는데 출장목적은 농사시찰 및 조사, 농사강습 및 講話, 위탁재배지도 및 조사, 과수재배 지도 및 조사 등으로 지도업무가 많았다. 수도작의 보급은 우선 종자를 지방의 독농가들에게 배부하고 위탁재배를 하도록 하여 일반농민들에게 전전한 후 우량종자를 보급하였으며 이러한 전전포의 설치는 1911년 462개소에 달하였다. 도 종묘장에서는 또한 견학생을 받아 증견 농민의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1922. 5. 15일자).

3. 학교에 의한 농촌지도사업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학교농업교육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1899년 대한제국에 의해서 설치된 상공학교가 1904년(光武 8년)에 농상공학교로 개편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황운성, 1967 : 108). 농상공학교는 이듬 해에 부속 농사시험장관제 반포에 따라 독점에 실습농장을 설치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농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실습농장은 이듬 해에 독점 원예모범장으로 개편되어 농촌지도를 위한 시험연구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농상공학교는 제대로의 활동도 하지 못하고 1906년에 농업과가 분리되어 농림학교로 설립을 보게 되고 이듬 해에 수원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농업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농림학교는 1909년에 규칙을 개정하여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본과의 학생정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1910년에는 권업모범장에 부속되었다가 1918년에 농림전문학교로 분리되었다. 또한 1922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로 1944년에는 관립 농업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수원농고등농림학교외에도 다수의 농업계

실업학교와 실업보습학교(간이농업학교), 졸업생지도학교, 간이학교 등이 있어 농업인력 양성은 물론 인근지역 농민지도사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농업계 실업학교는 1909년 실업학교령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하여 1911년에 16개교에 이르렀으며 주요 교과목은 일반작물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잠과 산림에 대한 것이 많았다. 실업학교에서는 실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점을 두어 하기 휴가를 없애고 실습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각종 지시사항을 내려 실습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농업학교에서는 지역 농업개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보통농사는 물론이고 축산, 잠업 등에서 개량된 농사기술을 실천영농하여 인근 농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농사개량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지도를 해주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수시로 교사들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거나 지시사항을 시달하여 교외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였다. 1912~1913년간 농업학교장 회의시 농장실습 또는 교외교육에 관련된 지시내용을 보면 농업학교 교사들은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지역 종묘장이나 권업모범장 支場과도 긴밀히 연락하여 지역 농업자료를 교수에 이용토록 하며 졸업생에 대한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황운성, 1967 : 118-121).

농업계 실업보습학교는 1910년 실업보습학교 규정의 반포에 따라 정규학교(실업학교 또는 보통학교)에 부설된 학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일종의 성인농민 교육기관이었다.

농업보습학교는 1911년 간이농업학교로 개편되었다가 그후 다시 농업전수학교로 개칭되었다. 농업보습학교는 현장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락의 중심인물을 양성함은 물론 농촌진흥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졸업생 지도학교는 보통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영농을 지도하는 학교로서 1927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하여(조선농회, 1권9호 : 65) 1935년에는 1,402개교에 이를 만큼 확대되었다. 간이학교는 보통학교에 가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보통학교에 부설한 학교로서 1934년 농촌진흥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도서벽지에만 설립하였으나 점차 도시지역에도 설립하였으며 본교는 물론 분교에도 설립하였다(渡邊豊日子, 1984 : 62). 간이학교는 교장도 없고 校舍도 없이 교원 1명으로 "1당백" 제도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교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간이학교는 2년 동안 한 교사가 가르치고 교사들을 그 학교가 위치한 마을에 살도록 함으로써 선생과 학생이 보다 밀착된 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도 없이 부락청년들을 지도함으로써 가정과 개인생활까지도 저버리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장지도로 말미암아 그 부락의 영농지도는 물론 생활개선이나 농촌계몽활동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박상만, 1956 : 228-239).

이밖에도 각급 일반학교에서도 농업교육과 농민지도를 담당하였다. 일제는 통감부 설치이후 1895년 이래 실시해 온 6년제의 소학교령을 1906년 6월 폐지하고 4년제의 보통학교령을 반포하여(구한국관보, 1906. 8. 31일자) 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일제의 교육방침은 "복잡한 학제와 장기의 수업연한은 한국 실정에 부적당하므로 학제를 단순히 하고 과정을 간단하게 하여 오직 실용에 적용하려는데" 있었다. 이는 일제가 한국에서의 각급학교 수업연한을 단축시키고 일반 국민교육을 축소하여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려 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의 침략정책에 필요한 식량공급기지의 확보와 하급 기술자의 양성을 위해서 농업교육을 강화하였다(홍덕창, 1900:92). 보통학교가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이러한 교과를 통한 교실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학교 교사의 지도가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다. 1912년 7월 보통학교강습회에서 학무국장의 훈

시를 보면 “여러분의 교화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1군 1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1916년 1월에 제정된 敎員心得에도 “교사는 학부형과 지역사람들과도 친밀하여 이들을 교화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교과를 가르치는 보통학교의 교사들은 스스로 솔선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교근처의 농민들에게 교외지도를 실시하였다(幣原坦, 1919:171). 학교에서는 농가에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소득증대 지도는 물론 생활상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으로부터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을 지도해주었다. 이러한 농촌지도는 학생들의 가정방문, 학교나 마을에서의 환동회, 학교에서의 通俗講談會, 교육부인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많은 실습포를 운영하여 아동들에게 과도한 노작을 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幣原坦, 1919:74-75).

4. 농촌진흥운동을 통한 농촌지도사업

농촌진흥운동은 1931년 우가키[宇垣] 총독이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우방협회, 1983:6). 당시 농촌은 피폐해 질대로 피폐하여 絶糧농가가 절반에 이르는 지경이어서 무언가 농촌진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시되던 때였다. 이러한 때에 새로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우가키 총독은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던 졸업생지도학교의 사례에서 농촌진흥운동을 구상하고 당시의 경기도지사를 총독부 식산국장으로서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1932년 6월에 개최된 지사회의에서 정식으로 천명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중앙인 총독부와 각 지방의 행정단위에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후임 마나미[南] 총독시기에 농촌진흥과를 신

설하는등 계속 확대되어 나갔으나 중일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1940년에 농촌진흥과가 국민총력과를 개편되면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농촌진흥운동은 物心一如의 정신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목표를 경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농산어촌진흥강연집, 1935:27). 경제개생의 목표로는 부족식량의 충실, 현금수지의 균형, 부채의 근절을 내세우고 정신적인 목적으로는 근로애호, 자주자립, 보은감사 등의 3대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종 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농촌진흥운동은 자력개생과 진흥대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방책으로 추진되었다(우방협회, 1983:56-57). 농촌진흥운동에서의 농가지도는 전 농촌부락의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정된 지도부락과 지도농가에 대한 집중지도방법을 이용하였다. 지도부락은 30~40호 정도의 부락을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하였고 지도농가는 그 지도부락에서 15호 내외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부락과 농가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하여 5개년 동안의 개생계획을 수립 지도하고 그 후에는 또 다른 부락을 선정 지도하였다. 농가 현황조사는 총독부에서 작성한 일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가족상황을 비롯하여 노동력, 겸업, 토지보유, 농작물생산, 자급비료생산, 농산가공, 현금수지, 부채상황 등 농가의 영농 및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황조사 완료되면 그 지역의 사정과 농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생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된 자료의 원본은 읍면에 비치하고 수시로 변동사항을 보완토록 하였다. 농가 개생계획은 부락담당 면직원이 가장과 협의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마을 유지나 부락의 농촌진흥회의의 견을 들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읍·면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행에 옮기도록 하였다.

농촌진흥운동에서는 농민을 지도할 때 다음과 같은 실천지향적인 지도원칙을 정하여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지도내용을 보면 먼저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작물의 영농기술을 지도하였고, 소득증대를 위한 양계, 양돈, 양잠 등의 축산기술과 공지를 이용한 약초와 채소재배를 지도하였으며, 또한 겨울철의 농한기에는 전습회 등을 통하여 가마니 짜기, 짚신 만들기 등을 교육하였으며 종합적, 복합적 영농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관념을 심어주어 충성 봉공하도록 하고 전인격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기(일장기) 게양을 지도하였고, 흰옷을 좋아하는 조선사람들에게 가사 및 영농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세탁하는 일들을 들어 줌으로써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色衣착용, 단발 등을 지도하였고, 회의 참석이나 농사일을 늦지 않고 제때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 잘 지키기, 국민의 의무수행을 강조하기 위해 납세준수를 지도하였으며 또한 물자절약을 위한 소비절약과 자급자족을 지도하였다. 또한 그림으로 그리거나 언문으로 또는 지도자나 부락유지가 대필하기도 한 가계부기록 지도, 실내청소 등 환경정리는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장소별로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도록 지도하였다(우방협회, 1983: 174-177).

각종 지도사업은 각 부락의 농촌진흥회장 참여하에 면서기, 기수 등이 책임자가 되고 보통학교 교사가 지도위원이 되었다. 농업보습학교 및 농업학교는 수개 부락을 담당하여 지도에 임하였다. 지도계획 수립, 야간 강화, 실제지도 등에 교사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여시켜 자립갱생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농민교육을 위해 정규학교외에 각종 농업개량강습소가 도, 군, 면에 설치되었고, 농업 산업단체, 금융단체, 농업시험연구기관에서도 각종 연습생을 모집하여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농촌 청년교육을 위해 도에는 도립농도원, 군에는 군농회가 설립한

군농도원이 설립되기도 하였다(황운성, 1967: 142).

5. 관부단체에 의한 농촌지도사업

官附단체는 일본농민의 한국이주를 지원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가장 먼저 조직된 관부단체로는 1902년에 조직된 목포홍농협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 군산 농사조합, 강경 토지조합, 부산농업조합, 대구농회, 신의주의 한국작잠흥업조합(문정창, 1961:6) 등 군소 단체들이 다수 조직되었으나 그 규모가 적었으며 1910년 한일합병이후부터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조선농회, 조선축산협회, 조선잠사회 등이 조직되었고 도단위 단체로는 도농회, 축산동업조합연합회, 棉作조합연합회가 있었으며, 군 단위에는 군농회, 지주회, 綿作조합, 양잠조합, 蠶叭조합, 과수조합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위정당국의 취지에 맞는 장려지도를 하고 전문기술원을 배치하여 단체원의 지도를 담당하고 나아가 농민의 복리증진과 국력의 신장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체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횡적 연계가 되지 않고 사업이 중복되며, 경비 부과 방법도 달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농업단체를 통일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각종 농업단체의 법적 근거부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6년에 조선농회령을 공포하여(조선총독부관보, 1926. 1. 25일자) 기존의 조선농회 및 모든 농업관련단체들을 일단 해체하고 새로이 조선농회를 설립하여 통합하였다.

조선농회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의 지도장려,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복리증진, 농업에 관한 연구조사, 농업에 관한 紛議의 조정 또는 중재, 기타 농업의 개량발달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조선농회보, 18권7호:2) 이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연회나 강습회를 개최하고 품평회와 共進會를 개설하였을

뿐만아니라 '농민데이'(조선농회보, 2권7호, 1928:141)를 설정하고 활동사진을 사용하여 계몽선전 활동도 전개하였다. 조선농회의 장은 처음에는 총독부의 정무총감이 겸임하였다가 후에는 민간인이 임명되었으며 또한 농회의 사무실을 도나 군청내에 설치하고 도, 군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자격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농정을 수행하는 특설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계몽농회인 조선농회는 농민지도의 제1선에서 활동하는 하급농회 특히 군, 島농회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농업기술 발달과 농업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게다가 농촌진흥운동의 실시와 함께 한층 다양하게 전개되어 농민지도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조선농회에서 대농민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역할은 군·島농회의 농사기술원들이었는데 이들은 전체직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며 그 수도 1940년에는 4,392명에 이르렀다(문정창, 1961:136-137). 이를 보면 조선농회에서 대농민지도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농회는 농민지도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당시부터 이것을 관할하는 관공서 담당자들에 의하여 부(府), 읍, 면과 같은 공공단체라고 강조되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회비를 징수하고, 농산물 판매사업 등 각종 경제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비경제민간단체로서의 성격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6. 순수민간단체에 의한 농촌지도사업

순수민간단체는 1920년대부터 집단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1930년대에는 1,000여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을 하였다(조선총독부경무국, 1933:168). 이들 단체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가 조선농민사였다. 조선농민사는 1925년 천도교가 조직한 농민단체로서 이후 10여년간 농민과 농촌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

다. 조선농민사를 창설하게 된 근본목적은 일제의 일방적인 식민지 농업정책에 대한 항거와 농민교화를 통한 민족의식의 고양, 그리고 농민의 자주적인 경제자립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표방하였으나 사실상 단순한 농민운동이 아니고 농민계몽과 농민야학을 통하여 농민사회교육 활동을 강력하게 실천함으로써 결국 일제식민지배의 공동화를 촉진하는 항일민족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었다. 조선농민사는 종래의 농민야학, 노동야학, 농민강습회 등의 농민계몽 및 농민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민교육의 실행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정기간행물인 '조선농민'과 단행본인 '농민독본'을 간행하여 농민계몽과 농민교육을 선도하였고, 농민공생조합운동과 농지공동경작운동을 통하여 농가생활 및 경제적 향상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농민야학, 농민강좌, 농촌순회강연회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농민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매년 12월 1일을 '농민의 날'로 제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대중의 주체의식과 자주성을 인식시키고 민족의식을 자각케 하는 등 농민대중의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기여하였다(주봉노, 1990:90).

민간단체중에서는 기독교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구한말 이래 근대화운동과 민족운동에 앞장서 온 기독교계에서는 농촌개선과 농민 계몽교육에도 주력하였다. 농민교육과 농촌지도를 담당한 주요 기독교기관으로서 YMCA와 YWCA, 농촌교회 등을 들 수 있다. YMCA(조선기독교청년회)는 1923년부터 국제위원회의 지원아래 농촌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농촌사업으로는 정신면에서는 사회복음전파를, 신체면에서는 운동경기 보급, 위생건강 및 성교육, 식생활 개선, 가정치료법 등을, 경제면에서는 종자개량, 비료, 윤작, 원예, 양잠교육 등을, 교육면에서는 농민계몽 및 문맹자 교육, 도서관 설치, 사회적인 면에서는 사회적 친

목 및 단결, 노래부르기 등을 실시하였다.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마을단위에 농민학교를 설립하여 한글, 산술, 보건외에 상과 기술 등을 가르쳤다(전택부, 1971:185-191). 1927년에 이르러서는 YMCA 주도하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4H청소년운동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YWCA에서도 농촌계몽활동을 벌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후일 “상록수”로 표현되는 최용신이 보인 헌신적인 봉사일 것이다.

이밖에도 농민교육 및 농촌지도활동으로는 각종 농민야학, 협동조합운동, 權友會의 농촌여성교육,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의 “브나르드”운동 등이 있었다.

Ⅲ.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 성격 규정의 배경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은 한국을 일본의 식량충족을 위한 공급지로, 일본의 공업발전에 소요되는 원료공급지로, 일본의 공업제품 판매를 위한 독점적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한국의 각종 자원을 수탈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 자국의 공업화를 위해서나 한국의 산업구조와 산업발달 정도에 있어 농업분야의 자원이 주요한 수탈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정의 주요방향도 이러한 자원의 수탈공급에 두어졌으므로 이를 위해 미곡을 중심으로 한 식량증산과 면화, 양잠을 중심으로 한 공업원료 증산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여러가지 정책을 수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토지조사사업, 농지개량사업, 농지제도개혁, 산미증식계획추진, 미곡공출배급제도, 농사개량정책등이었다. 이러한 농정의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으로 농촌지도사업 그 중에서도 식량과 공업원료의 증산을 위한 농사

개량지도사업은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일제는 저들의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식량이나 공업원료의 가공, 유통, 판매등을 억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로지 생산기지로써의 역할만을 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저의가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 증산을 위한 정책도 진정한 근대화, 자본주의 산업화로 발전에 맞는 정책으로서 농업의 구조를 개편 발전시키는 데 두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이며 식민체제유지를 위한 반봉건적 농업기반위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산물 증산을 농업의 근대적인 구조개편을 통해서 이루기보다는 직접적인 방법인 개량품종의 보급과 농사개량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이루는 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정책적 배경으로 개량품종의 보급과 농민교육을 지나치고 성급하게 추진하고자 집착한 나머지 강제적이며 강압적인 지도방법을 낳게 되었다.

한편 일제 식민통치의 교육정책을 보면 식민지 지배체제의 유지와 영속화를 위해 소위 황국신민화 내지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일본어를 보급하여 한국문화를 말살하고, 고등교육보다는 초등, 보통교육에, 그리고 인문사회과학분야보다는 자연과학 그 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의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어 저급의 노동자를 양성을 하는데 주력하였다. 실업교육중에서도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농업교육의 측면으로 볼 때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농업교육의 강화는 앞서 언급한 농정과 맞물려 학교에서의 농업교육만이 아니라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교육 훈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제시대의 농민교육 및 농촌지도사업은 주요정책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시기별 특징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규정해 보고자 한다. 1) 제1기(1906-1910): 근대적 농촌지도사업의 태동기 2) 제2기(1911-1919): 근대적 농촌지도사업의 기반 확립기 3) 제3기(1920-1930): 식량증산지도 시기 4) 제4기(1931-1940): 농촌진흥지도 시기 5) 제5기(1941-1945): 전쟁지원지도 시기

근대적 농촌지도사업의 태동기(제1기)는 1906년 2월 일제의 한국통감부가 설치된 때로부터 1910년 8월 한일합병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권업모범장 설치를 비롯하여 대한부인회의 양잠강습소 설치, 면화채종포 설치, 한국중앙농회 및 각종 농사장려단체 설립, 종묘장 설치, 임시면화채배소 설치, 농업기술원의 배치 및 농업기술관회의 정례화, 각종 농사강(전)습회 실시, 품평회 개최를 시작함으로써 체계적이며 근대적 농촌지도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한 시기였다.

근대적 농촌지도사업의 기반확립기(제2기)는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때로부터 1919년 3.1운동후 새로이 사이토[齊藤]총독이 부임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일제 식민체제 구축의 시기로서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농정체제확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농사장려지도 방침을 확립하였음은 물론 각급 행정단위에서 농촌지도 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사기술원을 증원 배치하고 권업모범장의 지장과 출장소를 확대 설치하여 전국적인 연구지도 조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식민지하의 농촌지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시기였다.

식량증산지도 시기(제3기)는 1919년 8월 사이토 총독이 부임한 때로부터 1931년 6월 우가키[宇垣] 총독이 부임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1920년의 산미증식계획으로 농정의

중점이 식량증산에 두어졌음으로 농촌지도사업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역할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된 시기였으며, 1921년에는 각도에 농무과를 신설하고 각군에 농사기술원을 배치하여 식량증산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1926년에는 조선농회령을 공포하여 각종 농업단체를 조선농회로 일원화하여 일사분란한 명령조직체계를 갖추어 식량증산 지도에 진력한 시기였다.

농촌진흥지도 시기(제4기)는 192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제공황과 미가하락의 영향으로 극도로 궁핍해진 농촌을 진흥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우가키 총독이 부임하는 1931년 6월부터 농촌진흥운동 추진의 중추적인 조직인 각급 행정단위에 설치된 농촌진흥위원회가 국민 총력운동을 위한 애국반으로 개편 변질되고 농촌진흥운동 업무를 전담해 온 총독부의 농촌진흥과가 폐지되는 1940년까지의 농촌진흥운동기간으로 이 시기의 농촌지도사업은 그 방향과 내용의 중점이 농촌진흥운동의 성과를 높이는 데 주어졌던 시기였다.

전쟁지원지도 시기(제5기)는 애국반 설치 이후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확대되어가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총동원체제의 시기로서 모든 행정과 농정조직은 물론 각종 관부단체까지도 전쟁지원을 위한 물자를 동원하는데 주력하였으므로 농촌지도사업도 그 본래의 임무수행이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V.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성격 및 의의

1.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성격

첫째; 식민통치수단적 지도사업이었다.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성격으로는 우선 식민통치를 위한 한 수단으로서의 지도사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 조선총

독부의 모든 행정 및 정책의 기본은 한국을 하나의 완전한 식민지로서 유지하려는 데 있었으므로 그 하위 정책인 농정이나 농촌지도사업은 식민정책의 기본방향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었다.

둘째; 행정주도의 비민주적, 하향식 지도사업이었다.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은 기본적인 식민정책과 농정수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하급행정기관으로의 상명하달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하향식 지도사업은 자연히 농촌주민과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관주도의 권위주의적, 강제적 지도사업이었다. 행정주도의 하향식 농촌지도사업은 그 목표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목표가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연히 관주도의 권위주의적이며 강제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의 집행은 농사기술원이나 행정관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찰력까지 동원되어 자행됨으로써 농정과 지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넷째; 관부단체를 동원한 관민합동의 거국적 사업이었다. 일제시대의 산업구조로 볼 때 농업과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였으므로 자연히 농정과 농촌지도사업은 총독부의 주요 정책사업이 되었으며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농정조직, 시험연구기관, 학교는 물론 각종 관부단체를 총 동원하여 관민합동의 거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다섯째; 식량 및 공업원료증산 중심의 지도사업이었다. 일제 식민정책의 기본이 자국 및 전쟁수행을 위한 식량문제 해결과 공업원료의 원활한 공급에 있었으므로 농촌주민과 농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농촌지도사업 본연의 목표와 방향보다는 이들 식량과 공업원료의 증산에 농촌지도사업의 주요한 목표와 방

향을 두었던 것이다.

여섯째; 순수한 민간의 참여없이 이루어진 관 중심의 지도사업이었다. 일제시대는 식민지 지배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순수한 민간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를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의 존립이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비록 약간의 활동이 보장된 1920년대의 민간단체마저도 그 기간이 짧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민간의 농민교육과 농촌지도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 중심의 지도사업이 되었던 것이다.

2.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의의

첫째; 일제식민통치의 한 수단이였다. 총론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볼 때 일제하의 농촌지도사업은 일제식민통치의 한 수단이였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인할 수 없다. 일제하의 농촌지도사업은 그 목표와 방향 및 방법 등이 총독부의 농업정책수행의 한 방편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농업정책 또한 총독부와 일본 본국의 식민정책과 밀접히 연결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제하의 농촌지도사업은 일제의 기본적인 식민지정책인 자국의 식량문제 해결과 공업원료 공급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오늘날의 농촌지도사업과 연속적인 시간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은 총론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농촌지도사업 태동시기와 연결되었다는 시간적 역사성으로 보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오늘날의 농촌지도사업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험연구를 토대로 한 근대적인 농촌지도사업의 시초이였다. 1906년 통감부 시기에 설립된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한 각도의 종묘

장에서는 지도사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품종의 육성보급과 농작물재배기술 및 영농기술 개발로 뒷받침함으로써 시험연구를 토대로 한 과학적이며 근대적인 농촌지도사업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

넷째; 강제적 농촌지도사업을 배태시켰다. 관 주도의 권위주의적이며 강압적인 농촌지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강압적이며 비민주적인 지도방식의 경험은 때로는 민주적인 지도사업을 추구하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의 농촌지도사업에도 어느정도 부정적인 요소로 잔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농정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불신 풍조를 배태시켰다.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이며 때로는 농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농정과 지도사업을 통한 농민들의 관과 농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경험은 오늘날 이러한 성향에 대한 일단의 관련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섯째; 농촌지도사업의 하위체계(hardware)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오늘날 농촌지도사업의 하위체계에 해당하는 조직체계, 건물·장비 등 시설, 용지, 기구, 구성인력 등은 일제시기의 그것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거나 유지하고 있어 오늘날 농촌지도사업의 하위체계 토대는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도사업의 하위체계중에서 특히 권업모범장 및 농사시험장과 각도 농사시험장의 시설, 건물, 용지, 기자재, 기구, 인력 등은 대부분 오늘날의 농촌진흥청과 각도 농촌진흥원의 물리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일곱째; 농촌지도사업 상위체계(software)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농촌지도사업의 상위체계라 할 수 있는 전개과정, 방법, 내용 등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하 농촌지도사업이 총론적, 거시적으로는 한국 농민들의 이해에 상반되는 것이라도 부분적, 미시적으로, 즉 개개 농가나 부락단위에서는 농민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

들을 위한 지도방법이나 과정, 내용 가운데는 오늘날 다시 되풀이 되어서 안되는 경험들도 많이 있지만 농한기를 이용한 농민교육의 강화, 개개 농가단위와 부락단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실천지향적 지도방법, 생활개선사업의 구체적이며 계획적인 지도, 중견농민양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은 연구발전시켜야 할 경험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농민의 농업기술수준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인식이 제고되었다. 일제초기의 낮은 농민의 농업기술 수준과 전통적인 영농방법은 개량품종의 도입, 육성, 보급과 각급학교 농업교육을 통한 농업기술자와 중견농민의 양성, 농업기술원 및 각급 농민교육기관을 통한 농사기술 강습, 전시, 지도 등에 의하여 그 기술수준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영농의 과학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었다. 특히 농촌지도사업은 교육적 특성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그 농사기술 수준의 향상이 농정 및 식민정책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전체 농업생산성이나 농가소득 향상과는 제대로 직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사기술에 대한 교육경험을 부여하고 인식을 새롭게 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농민교육을 위주로 한 순수민간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이 태동되었다. 식민지배라는 특수성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의 육성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시기에 다소의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순수 민간인들에 의한 조직적인 농민교육 및 농촌지도, 농촌진흥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순수민간단체에 의한 농촌지도사업이 태동된 시기였다.

VI. 맺 음 말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은 식민통치의 근간이 된 농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교

육정책 실현의 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그것이 가지는 성격은 일본 자국의 식량 및 공업원료 증산, 공급이라는 식민지적 농업정책과 농업교육을 위주로 한 실업교육에 중점을 둔 식민지 우민화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의 농촌지도사업은 식량 및 공업원료 증산을 주 목적으로 한 관 주도의 하향적이며 강제적인 성격을 지닌 지도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첫째; 총론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볼 때 식민통치의 한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되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오늘날의 농촌지도사업과 그 시간적 연속성으로 인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농촌지도사업과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부분적, 미시적 관점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후 미국식 농촌지도사업을 근간으로 발전되어 온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제시대의 농촌지도사업과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전의 그것과의 역사적인 접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I. 인용 문헌

1. 권업모범장, 권업모범장일람, 1926.
2. 권업모범장, 권업모범장보고서, 1907-1926.
3. 구한국정부, 구한국관보, 1905-1910.
4. 김기용, 일제하 농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논문, 1984.
5. 문정창, 한국농업단체사, 일조각, 1961.
6. 渡邊豊日子, 朝鮮總督府回顧談, 友邦協會, 1984.
7. 박상만, 한국교육사, 대한교육연합회, 1964.
8. 박태식·홍기용, 농사지도사업의 사적 고찰-일제하의 농사지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4(1), 1972.
9. 山口盛, 宇垣總督の 農村振興運動, 友邦協會, 1966.
10. 小早川九郎編, 朝鮮農業發達史(資料編), 友邦協會, 1960.
11. 友邦協會, 朝鮮における農村振興運動(資料選集), 1983.
12. 이한기,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3. 전택부, 인간선홍우, 대한기독교서회, 1971.
14.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일제하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일조각, 1984.
15. 조동걸,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농민야학", 한국사상 16, 1978.
16. 조동걸, 일제하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86.
17. 조선농민사, 조선농민, 1925~1930.
18. 조선농회, 조선농업발달사-정책편, 1944.
19. 조선농회, 조선농업발달사-발달편, 1944.
20. 조선농회, 조선농회보, 1910~1944.
2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1910~1945.
22. 조선총독부, 농산어촌진흥강연집,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본부, 1935.
23. 朝鮮總督府, 農村振興運動の全貌,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36.
24.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 1933.
25. 주봉노, 1920년대 조선농민사의 농민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90.
26. 지수걸, 1932~35년간의 농촌진흥운동, 한국사연구 제46호, 1984.
27. 평안북도종묘장, 사업보고, 1926
28. 幣原坦, 朝鮮教育論, 穴盟館, 1919.
29. 한국중앙농회, 한국중앙농회보, 1906~1910.
30. 한국통감부, 한국통감부공보, 1907~1910.
31. 한도현,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32. 홍덕창, 대한제국시대의 실업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33. 황운성, 한국농업교육사, 대양출판사, 대전, 1967.